

🌋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코코스

평소 학우들의 발걸음이 분주히 오가던 모리아관 옆길이 방학을 맞아 고요하다. 국내외 곳곳에서 탐방과 봉사, 휴식과 자아 충전을 위해 떠난 학우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관련기사 4면]

## "신학과, 입학정원 줄이니 지원자는 더 줄고 경쟁률은 더 떨어졌다"

본보, 전국 35 개 대학 신학과 입학정원 및 경쟁율 분석 내일의 교회지도자 가뭄으로 이어질 것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35 개 4 년제 대학의 2022 학년도 신학과 (기독교학과, 기독교교육과 포함)의 입학정원은 1,547 명으로 2020년 (3년전)1,882 명에비해 355명 (17.80%)을 줄였는데 같은 시기에 지원자는 4,684명 (20년)에서 3,085명 (22년)으로 34.13%나 격감하였다. 신학과의 입시경쟁률도 20년 2.49:1에서 22년에는 1.99:1로 내려 앉았다. 아직 2023년도 통계는 발표되지 않아 알수 없으나 신학과 지원자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가 줄어 정원을 줄이면 지원자는 두 배로 줄어든다는 역설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신학과의 입학정원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신학과가 있는 35 개 4 년제 대학의 2023 학년도 입학정원은 31,690 명에서 28,446 명으로 3,244 명, 10.23% 줄인데 비해 신학과의 입학정원은 1,956 명에서 1,490 명으로 466 명, 23.82% 나 줄였다. 신학과 감소폭은 소속 대학의 입학정원 감소폭 보다 14% 나 더 줄인셈이다. 신학과 줄이기가 끝을 모르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도 신학과 정원을 줄이지 않은 대학은 10 개 대학으로 감신대 (신학부입학정원 200명), 한국성서대 (63명) 장신대 (50명), 영남신대 (36명), 대신대 (35명) 등이며, 그 외 24 개 대학이 정원을 줄였고, 1 개 대학은 신학과를 폐과하였다. 2023 학년도 신학과 입학정원이 50명 이상인 대학은 감신대 (200명), 백석대 (100명), 총신대 (97명), 서울신대 (96명), 한국성서대 (63명), 한국침신대 (62명), 아신대 (56명), 나사렛대, 목원대, 장신대, 협성대 (각 50명) 등 11 개교이다.

신학과 지원자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대학의 소극적인 대처로 위기는 급격히 다가오고 있다. 신학과의 위기는 내일의 교회지도자의 가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할 일 많은 이 땅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간곡한 기도와 현장을 뛰는 끈질긴 노력으로 위기 를 돌려 놓는 큰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 (히 5:12-14)



제리 셜리 (Jerry Shirley) 목사는 오늘날의 유일한 죄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대 사회는 더 이상 죄를 죄라고, 타락을 타락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다만 "다양성"이라고, 혹은 "개인의 자유"라고 한다. 특정 생각과 가치를 죄라고 규정하면 그것이야말로 편협하고 차별적 행위가 되는 세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5 장 14 절은 "장성한 자", 곧 "성숙한 신앙인 "인지를알 수 있는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 "하는 능력을 들고 있다. 특히 "연단을 받아 "야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표현은 원어 ' 굼나조 ' (훈

련하다 ) 로 체육관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 짐나지움 '(gymnasium) 의 어원이 되는 동사이다 . 운동 선수들은 하나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길고도 고된 시간을 인내하고 반복하며 훈련한다 . 문제는 이렇게 힘들게 기술을 습득해도 훈련을 멈추는 순간 숙련도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

많은 것이 혼란스러워지는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훈련을 긴 시간 지속하되 끝까지 멈추지 않으므로 분별하는 삶, 장성한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성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

#### 「밀알 청소년 캠프」다시 연다

7월 31~8월 2일까지 22개 교회 148명 참여



▲ 자원봉사자 워크숍이 일립관 B101 호에서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상황으로 동면하던 전통의 「밀알 청소년 캠프」 가 기지개를 펴며 일어난다. 캠프는 교목실 주관으로 오는 7월 31(월)~8월 2일(수)까지 2박3일간교내에서 펼쳐진다. 주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마 22:36~40). 캠프 기간에 성경학습, 찬양, 교제 및 이단 바로 알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으며 22개 교회에서 청소년 148명이 참석한다.

「밀알 청소년 캠프」는 지난 2003년 시작, 활발히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로 잠시 멈췄었다. 참가 대상은 한국성서선교회 소속 교회와 동문이 섬기는 미자립 교회, 농어촌 소규모 교회에 속한 청소년들이다. 수도권과 일부 충청 강원이 대부분이지만 전남 함평군 3 곳 (감람, 성광, 함평석성교회)도 등록을 마쳤다. 올해「밀알 어린이캠프」는 여건상 운영하지 못하고 내년에 열 계획이다.

이번 캠프를 섬기기 위해 80 여명의 학우가 자원봉사자로 함께 한다. 한국성서 대학의 저력이다. 이들은 지난 22 일 일립관 보육실습실에서 자원봉사자 사전 워크숍을 가졌다. 캠프의 주제, 팀별 역할 분담, 청소년과 교감력 증대 등을 익히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 여 년간 지속해 온 우리 대학의 밀알 캠프 (청소년, 어린이캠프)는 "성 서의 뜻을 이루는 교육공동체"를 기반으로 미래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하나의 견고한 밀알의 싹을 틔워가는 목적을 담고 있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 중에는 우리대학에 진학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 그들은 스스로를 성서대의 적통임을 자부하고 있다 .

#### 학교 부채 , 6월 30일자로 "0"원 하나님의 은혜

23 년 동안 원금 85 억과 이자 28 억 총 113 억 분할 상환 한 번도 상환을 미루거나 납입 일자 어긴 적 없어



학교 부채가 지난 6월 30일자로 "0"원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학교는 밀알관, 일립관 건축 등 시설 확충을 위해 1999년 1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 5회에 걸쳐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85억 원을 차입하였는데 지난 23년 동안 원금 85억과 이자 28억을 합쳐 113억을 분할 상환해 왔다. 6월 30일 납부한 마지막 분할 상환액은 761만 원이었으며, 지난 23년 동안 단한 번도 상환을 미루거나 납입일자를 어긴 적도 없었다.

이 원금 85 억은 일립관 신축 9 억, 일립관 증축 21 억 7 천, 밀알관 신축으로 54 억 4 천이 소요 되었다. 그러나 실제 건축비용은 자체 경비를 포함하여 일립관 신축 26 억 7 천, 일립관 증축 59 억 5 천, 밀알관 신축 82 억 5 천이 들어 총 건축 비용은 168 억 7 천이 사용되었다. 이 외에 기존 건물의 개보수 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모리아관 외부 벽돌 조적 공사 등에도 줄잡아 20 억 이상이 소요되었다.

강우정 총장은 " 그동안 힘든 나날이었지만 하나님은 매일 매일 우리 앞에 기적을 보여주셨으며 학우들을 비롯하여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움직였기에 가능하게 되었다 " 고 간증하였다.

학교는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갈멜관 증축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2 층 혹은 5 층까지 증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갈멜관 증축 공사 기본설계 ' 용역계약을 맺는 한편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증가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 계약도 체결하였다.

KBU Global Challenge! 실리콘밸리 방문 일본 후지산 등정 등



여름방학 시작에 맞춰 그동안 코로나로 억눌러 왔던 학우들의 해외 연구 탐방과 봉사 및 재능기부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 KBU Global Challenge 에 선발된 4명의 미국 실리콘 밸리 AI 현장 방문 (7월 3일) 을 시작으로 국내 재능 봉사 등 이 전개될 예정이다 . 6월 30일 확인된 학우들의 공식 일정을 소개한다.

- 취창업지원센터 주관으로 "2023 KBU Global Challenge" 에 선정된 2 개팀이 미국과 일본을 탐방한다. CS 학과 'A.E.T' 팀은 7월3~21일까지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AI연구개발 담당자 및 전공 대학생과 만남을 갖고 기술적용과 흐름, 네트워크 형성 등에 나선다. 김우원외3명.
  - ' 복세편살 ' 팀이 7월 16~21일까지일본 오사카와 교토에서 사랑의 교회, 샬롬요양원과 도지샤 대학을 방문, 개신교 사역과 전도 파악, 고령화와 지역 복지제도 탐구 및 관련 토론에 참여한다. 미야우치 린(사복 2)학우 외 3명
- 지역사회임팩트센터가 주관한 KBU 임팩트 학생봉사단이 7월 16~22일 까지 필리핀 앙헬레스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갖는다. 초등생과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 및 노력 봉사, 문화교류 및 플로깅에 참여한다. 오동영 (사복 4)외 6명.
- 2023 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WFK 해외청년봉사단원으로 선발된 간호학과 김예은 (2) 학우가 몽골, 이윤경 (2) 학우는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현지에서 타대학 학우들과 함께 교육, 노력 및 문화교류를 펼치게 된다.
-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재능봉사에 선발된 '우리는 하나다 '팀이 7월 10~14일까지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한다. 사복 학우를 주축으로 느린학습자와 저소득층 아동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 및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을 돕는다. 윤성준(3)외 6명.
- 교내 등산동아리 하이산악회가 일본 후지산 정복에 나선다. 7월 3~6일까지 혼슈의 후지산 (3,776 m) 정상에 도전하여 KBU 인의 힘찬 기개를 펼치게 된다. 나단 (성서 4)학우 외 4명.



## 일립 (一粒) 강태국박사 25 주기추도예배

7월 25일(화)오전 11시 로고스홀에서

우리 대학교를 설립한 '일립 (一粒) 강태국 박사 25 주기 추도예배 '가 오는 7월 25일 (화) 오전 11시 본교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거행된다.

인본주의 세속화의 거친 풍파에서도 오로지 민족 복음화를 위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이어온 일립의 발자취와 신앙을 회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2023 학년도 1 학기 종강예배

강규성 목사

"자유와 승리를 안겨줄 복음을 전하자"



▲ 강규성 부총장

2023 년 1 학기 종강예배가 16 일 진행되었다. 예배에는 80 여명의 학우들이 참석하였다.

강규성 교목실장이 ' 거북한 복음 '( 행 4:1~4) 으로 말씀을 전했다 . " 복음은 기 쁜 소식이다 .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 제사장들과 당대 종교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매우 거북하게 여겼다. 믿는 자에게 안겨 줄 승리와 기쁨, 안식과 평안, 자유 함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 게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학 기간에도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를 안겨줄 복음을 전하자 "고 말했다.

강우정 총장은 '전도의 해'를 맞아 학우들 가운데 88 명이 구주를 영접하도록 개입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2 학기 ' 안 믿는 가족 구하기 ' 노력 에도 놀라운 결과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KBU 공로자 ' 15 명에 공로 표창

'신앙훈련과 신앙교육의 개선' 등 3 가지 분야 성과자



▲ 강우정 총장이 조윤경(왼쪽) 교수에게 시상하고 있다

2023 년 상반기 'KBU 공로자 ' 포상이 28 일 교직원 채플 후 진행되었다. 이번 포상은 강우정 총장이 2023 학년도 신년사에서 제시한 3 가지 목표와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대상자가 선정됐다. 3 가지 목표와 과제는 △ 신앙훈련과 신 앙교육의 개선 △교수 역량강화 △목표가 이끄는 행정 체제 등이었다.

시상은 강우정 총장이 각 개인에게 일일이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부상은 50 만원이다.

△ 신앙훈련과 신앙교육 분야의 개선 성과는 「안 믿는 학우 전도하기」 사업을 통 해 믿지 않는 학우 88 명을 결신케 하는 결과를 보여준 교목실 목사들이 받았다. 올해 우리대학이 「전도의 해」를 표방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상황에서 거둔 획 기적인 사건이며 값진 성과로 기록된다.

△ 교수 역량강화 분야는 「학생 - 교수 간 유형별 프로젝트」에서 학생과 교수 가 전공 연구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여 그 결과물로 교재출판과 KCI 급 학술연구 지 게재까지 이뤄냈다.

△ 목표가 이끄는 행정 체제는 「2023 년 교외연구비 목표 3 억 수주 프로젝트」 를 1/4 분기 만에 조기 달성한 지표관리자 김현동 팀장 (기획실) 과 5 천만 원이 상의 외부연구비를 수주한 교수들에게 돌아갔다. 금년 목표는 10 건에 연구비 3 억을 수주하는 것이었는데 4 개월만인 6월 30일 현재 9건에 4억 1천 4백만 원의 연구비를 수주, 목표대비 138%를 이룩하는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성과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신앙훈련과 신앙교육의 개선** ▲ 구광면 목사 ▲ 김창현 목사 (교목실)

△ 교수 역량강화 ▲ 강규성 교수 (성서) ▲ 이민규 교수 (성서)

▲ 김웅기 교수 (성서) ▲ 김정원 교수 (영보)

▲ 조윤경 교수 (영보) ▲ 임지영 교수 (컴소)

▲ 최은희 교수 ( 간호 ) ▲ 이소정 교수 ( 간호 )

▲ 김소희 교수 ( 간호 )

△ 목표가 이끄는 행정 체제 ▲ 김승옥 교수 ( 평교 ) ▲ 장인순 교수 ( 간호 )

▲ 김원빈 교수 ( 컴소 ) ▲ 김현동 팀장 ( 기획실 )

#### 2023 년 학년도 1 학기 교직원 연수회

총장의 격려, "모든 지표에서 상위 20% (Major League) 에 진입한다"



▲ 고위직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배진형 교수

2023 학년도 1 차 교직원 연수회가 26 일 갈멜관 305 호에서 진행되었다.

연수회는 예배로 시작 되었다. 강규성 부총장은 말씀을 통해 "지난 1 학기 동안 수업과 행정으로 수고해 준 공동체에 감사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 교만을 경계하고 능력 주시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떠나지 말아야 할 것"(신 8:11~18) 이 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강규성 부총장 (혁신사업단장) 이 '2023 년도 대학혁신사업 계획 '을 발표하였다. 그는"이 계획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생 모집부터 재학초기, 재학 후기 등 시기별로 학우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이어갈 수 있는 학사제도의 혁신적인 계획임을 설명 "하고 의견을 구했다. 이어 배진형 교수 (인권센터장, 사회복지학과)가'고위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교내 정보보안 교육(김덕원 전산지원팀장), 장애학우 지원 현황(김성경 교수,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김중완 일립행정본부장)등으로 이어졌으며 최육열 본부장(입학·학업지속지원본부)이 2024년도 수시모집을 안내하며 각학과가자기학과의 신입생 모집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어 교수회의와 직원회의가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강우정 총장은 권면에서 총장 신년사에서 강조하였던 세 가지 목표와 과제

△ 신앙훈련과 신앙교육의 개선 △ 교수 역량 강화 △ 목표가 이끄는 행정체계 등이 1 학기 동안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사례로 풀어 나갔다 . ' 신앙훈련과 신앙교육'은 88 명의 결신자를 낸 지난 5월3일 전도집회를 예로 들었다 . 이 일은 대학의 설립목표와 교육목적을 단번에 이루어 낸 기쁜 일이었다 . 문제점으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한 학교 분위기는 냉랭하였고 입에 올리기조차 꺼려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총장은 이 현상에 대해 학우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 것이 아닌가본다며 앞으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고 역설하였다 .

'교수 역량 강화 '는 「학생 - 교수 간 공동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성과가 말해준다. ' 강의 '보다 ' 가르치는 일 '에 교수들의 역량을 보여 준 좋은 성공 사례라고 평했다. '목표가 이끄는 행정 '과제에서는 '전임교수 1 인당 외부연구비 '를예로 들었다. 담당자들은 불과 4 개월 만에 금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이는 담당자들이 목표에 대한 분명한 달성 의지를 갖고 노력하여 이루어 낸 성과라고 평했다.

총장은 지표 중심의 행정, 모든 지표에서 상위 20% (Major League) 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자며 격려하였다. 성과를 올린 교직원에게 보상도 주어져야 한다는 신년사의 대목을 상기시키며 꼭 이루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2023 학년도 성경 졸업고사 51.4% 합격 2023 학년도 1 학기 성경졸업고사가 3 일 로고스홀에서 치러졌다. 졸업고사에 183 명이 응시,이 가운데 94 명 (51.4%)이 합격하였다. 올해 합격률은 전년도 1 학기 (47.8%)보다 다소 높다. 입학 후 첫 시험에 도전한 1 학년 25 명 (65.8%)이 단번에 합격하는 저력을 보였다. 4 학년 53.3%, 2 학년 46.2%, 3 학년 41.2% 순으로 나타났다. 2 학기 성경 졸업고사는 오는 11 월 11 일에 있다.

"사랑을 나눠 준 분들께 감사"



▲ 오윤선 (가운데)교수가 야식을 전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된 기말고사 야식 서비스가 지난 12 일 ~15 일까지 다시 시작 되었다. 12 일 첫날(월)밤 11 30분,학생 식당을 찾은 학우 130명에게 컵밥,커피와 차등을 대접하였다.메뉴는 13일(화)김밥,14일(수)이 삭토스트,15일(목)봉구스 주먹밥이었으며 양이 부족한 학우들을 위해 컵라면을 준비해 놓았다. 강우정 총장과 보직 교수,교직원들도 참석해 야식을 건네며 학우들을 격려하였다.

야식 서비스는 강우정 총장, 현희철 목사 (중앙성서교회 담임), 반종원 목사 (수원침례교회, 법인이사장), 최정권 목사 (성서대학교회 담임)가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정원 (성서 1)학우도 40만 원을 후원해 주었다.

홍시은 (영보 3) 학우는 "밤늦은 시간, 야식을 전하고 받는 이 공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든든한 야식으로 공부 집중이 잘 됐다며사랑을 나눠 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 월계종합사회복지관 개관 30 주년 기념식

"선도적 복지기관의 위치를 지켜 나가겠다"



▲ 직원들이 '은혜' 곡을 특송하고 있다.

월계종합사회복지관 개관 30 주년 감사 예배가 14 일 복지관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강규성 교목실장이 '우리의 책임 '(신 15:11)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월계복 지관의 30년 속에는 구성원들의 수고와 헌신이 큰 역할을 해 주었으나 근본적으로 는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의 결과이다. 그리스도는 낮고 연약한 자를 섬기며 그 들과 함께 하였다. 복지관은 약자와 동행하는 공동체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초심 을 끝까지 지켜달라 "고 강조했다.

오동준 관장은 "헌신적으로 섬겨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직원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선도적 복지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지켜 갈 것 "이라고 인사하였다.

강우정 총장은 축사에서 "첫째, 감사해야 한다. 이곳에 존재할 수 있게 한 하나 님과 나아가 이웃과 동료를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둘째, 항상 가난한 마음 으로 섬기기를 바란다. 교만을 절대 경계하고 겸손과 사랑을 담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 며 축사해 주었다.

직원들이 특송 ' 은혜 ' 를 불렀는데 " 월계의 30 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었다"는 가사의 찬양곡을 진정성 있게 불러 감동을 자아냈다.

#### 사무관리팀 곽경미 산학협력단 박연지



▲ 곽경미



▲ 박연지

사무관리팀에 곽경미씨 , 산학협력단에 박연지 씨가 임용되었다 . 곽경미 직원은 ㈜유니슨과 원앤피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감당해 왔다 . " 하나님을 섬기는 성서공동 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감사하며 불러주신 소명에 따라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회계와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

박연지 직원은 ㈜이노션과 지비글로벌에서 회계와 제품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귀한 성서대학에 근무하도록 개입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작은 능력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한 다.

## 성서학과 MT 포천 성실<del>동</del>산에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다'



▲ 성서학과 MT 에 참기한 학우들

성서학과 MT 가 26~27 일까지 경기도 포천 성실동산에서 '리트 (RTT)'성 서학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재학생 72 명과 학과장 김현광 교수 등 8 명이 참석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학업에 진력해 온 서로를 격려하고 학과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가 됨을 함께 확인해 가는 자리이다.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1 학년부터 4 학년까지 서로를 알아가는 레크레이션으로 MT의 막을 열었다. 낯설고 서먹한 관계에서 점차 웃음과 대화의 꽃이 피기시작하였다. 이후 더위를 씻어줄 물놀이에서 벽은 급격히 허물어졌고 바비큐 파티로 공동체간 끈끈한 우정과 배려가 쌓여갔다. ' 장기자랑'에 신입생의 패기있는 랩과 노래, 고학년들의 개그콘서트 등 학년을 가리지 않고 장기를 뽐내며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이튿날' 자연에서의 교제'는 초록이 가득한 자연으로들어가 서로 교제하고 사진도 찍으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장식했다.

나단 학우 (성서 4)는 "마지막 MT 를 동기 · 후배들과 함께하며 공동체가 하나 됨을 느꼈다. 자연에서 쉼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와 교제할 수 있어 감사했고 이 순간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 "고 간증하였다.

## 고승태홀 조명등 교체 등

서울광염교회 ( 담임 조현삼 목사 ) 가 시공도 하고 비용도 전액 부담



▲ 북카페 입구에 설치된 펜던트 레일등

밀알관 고승태홀이 밝아지고 있다. 내부의 낡은 조명 등이 교체되었고 멋진 장식등이 추가 되었다. 고승태 홀과 복음관을 잇는 복도의 천정과 바닥도 산뜻한 마감재로 바뀌면서 쉼과 교제, 학습하기 좋은 공간으로 거듭났다.

고승태홀 로비의 앞쪽은 2 개 층이 확장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내부를 밝혀줄 조명등이 높은 위치에 설치돼 다소 어두웠다. 공사는 고승태홀 좌우면 중심으로 펜던트 레일등 각 5 개를 원목 테이블로 향하도록 늘어뜨려 조도를 올렸다. 맨 위 천장의 등까지 신형 LED로 교체, 고승태홀 전체가 부드럽고 환해졌다. 복도 전체 형광등도 밝고 우아한 핀조명으로 교체했다.

이번 고승태홀의 조명등 교체 공사도 서울광염교회 (담임 조현삼 목사)가계 획하고 시공까지 전부 맡아 해 주었다. 서울광염교회는 지난 2021년 7월,고 승태홀 카페테리아와 북카페 내부 전체 교체 공사를 도맡아 주었으며 모든 공간에 들여 놓은 대형 원목 탁자와 각종 테이블, 철제 책장과 의자 일체 비용까지 다 감당하며 학교의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2024 학년도 수시모집이 9 월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입시전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매스컴은 입시전쟁이 지방 대학 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있더라도 우리 같은 소규모 대 학들은 입시가 지방대학에 못지 않은 대학 간의 전쟁인 것이 틀림없 습니다.

우리 대학 지원자들이 우리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성서 '대학 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은 한계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우리의 마켓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그 다음 이유는 학교의 인지도 보다 학과를 보고 온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학과를 본다는 것은 자신 이 선택하는 학과의 취업률 , 취업하는 기관 등 객관적인 대학의 성 취도가 그들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명한 증좌는 수시 최초합격자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 다. 최초합격자들이 우리 대학을 선택하는 비율은 60%를 넘지 못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타 대학은 근처 전문대학이나 4년 제 대학이라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선택하며, 대부분 같은 학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 우리의 싸움은 처음부터 SKY 대학 이나 대규모 대학 지원자들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시에서 우리 학과만의 성취도를 선전하고, 학과의 매력을 알려야 합니다. 학과의 교수님들과 소속 학우들은 자신들의 학과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학과의 장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수시모집부터는 학과가 입시의 최전선에 나서 주기를 바랍 니다. 저는 약 1년 전부터 입시에서 학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학과에 '입시와 학업지속지원 '을 담당하실 부학과장 제도를 두자고 주장하였습니다 . 교수님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 을 알면서도 입시를 입시팀에게만 맡기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합니 다.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이 일을 조금 씩이라도 나누어 짊어지고 가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평 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at all times and in every way) (살후 3:16)』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직원 컬럼 지수빈 직원(대학혁신사업단)

#### 여름 바다와 할머니

어릴 적 내 기억 속 여름 휴가란 매년 시골에 살고 계시 는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이었다. 아빠 차에 짐을 한가득 싣 고 의정부에서 출발해 전라남도 강진까지 6~7 시간을 내 려가는 길은 어린 나에겐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게 지루해 못 견딜 때쯤 휴게소에 들려 맛있는 간 식을 먹는다. 다시 차에 타서 자고 깨기를 반복하다 보면 노을이 진 예쁜 하늘이 나를 반겨주고 있었고, 또다시 눈 을 떴을 때는 어슴푸레한 밤의 풍경과 마주하면서 목적지 에 도착할 수 있었다. 굽이 굽은 시골길을 올라 차에서 내 리면 어김없이 할머니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애타게 우 리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오메 수빈이 왔냐 ~" 하시며 반가워하시던 그 모습은 항상 시골에서 홀로 외롭게 계시던 할머니에겐 어쩌면 당 연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밥을 먹고 늘 그랬듯 해 수욕장에 놀러 갈 채비를 했다. 보통 놀러 가면 우리 가족 끼리만 저 멀리 해남 바다를 다녀오곤 했었는데 그해 여름 은 할머니도 우리와 함께 가고 싶다고 하셨다. 막상 바다 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힘들다며 텐트에 앉아 계셨지만 나 와 동생은 개의치 않고 뙤약볕에 피부가 다 탈 때까지 물놀 이를 했다.

그 뒤로 할머니는 걷는 게 불편하여 더 이상 우리와 함께 놀러 가진 못하셨지만 매해 여름이 찾아오고 여름 바다를 보면 늘 우리와 함께 했던 할머니 생각이 났다. 성인이 되 며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할머니는 우리 곁을 영영 떠나셨다. 마지막 인사를 하며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는 죄책감의 얼굴을 한 나의 모습. 할머니가 떠난 후에도 바쁜 일상으로 한동안 잊고 살았었 다 . 다시 여름 , 불현듯 내 마음속엔 그때의 추억이 가슴 한 켠에 남아 다시금 할머니를 떠올리게 한다. 할머니와 함께 했던 그해 여름 바다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교수 컬럼 최사랑 교수 (성서학과)

#### 4 년만의 휴가

이번 학기 이상심리 수업을 하면서 각 성격장에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었다. 특별히 C 군 성격장에에는 강박성 성격장애가 포함되는데,이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징은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고,경직되어 있으며,과업 / 지식 중심적이라 일 중독증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수업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하니,한 학우분이 "교수님이 그렇다는 것이지요?"라고 반문했다. "네, 맞습니다."한바탕 까르르 웃었다.정말 이렇게도 나를 잘 설명하는 성격장애(?)가 또 있을까.

4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못 갔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보지만, 결국은 일이 많아서라는 핑계다. 핑계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실은 나에게는 정말 너무 급박한 일들이, 산적한 일들이 많았다. 요령도 부릴 줄 모르고, 고지식하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다 보니 해야 할 일들이 해도 해도 끊이지 않았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다.

그랬더니, 내 몸 여기저기서 나에게 막 신호를 보낸다. 여기저기 고장 난 소리, 삐그득 거리는 소리, 덜컹거리는 소리.. 무디고 참고 견디는데 도가 튼 내가 다 들을 정도니 이 신호가 얼마나 큰지 순간 덜컹 겁이 다 나더라.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나에게 쉼을 좀 주려고 한다. 4 년만의 휴가다. 그렇다고 딱히 거창한 계획을 세운 건 없다. 그냥 좀 쉴 거다.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법인데, 나는 마치 한계가 없는 사람처럼 그냥 무작정 달렸던 것 같다. 어쩌면 그게 내 교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 말이다. 하나님은 참사랑이시지만, 때때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번에 이런 쉼을 가져야 한다는 ' 마음'을 내 안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저 쉬러 갑니다. 4년만이에요. 연락은 사절.



**학생 컬럼** 신소화(성서학과 3)

#### 복잡하게 말고, 단순하게

가볍지만 진솔한 '삶의 태도 '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아, 피하고 싶다', '어떻게 하지?'하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가요? 저는 인간관계에서 지인에게 평소와 다른 부정적인 모습과 감정이 느껴지면 그렇게 됩니다.'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하지?'를 시작으로 '내가 혹시 잘못했나?', '내가 기분 나쁘게 대했나?', '뭐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끝 없는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는 막상 토 나올 것 같은 기분을 다 삼키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상대방은 전혀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자주 돌아왔었습니다.

어느 날, 이를 놓고 기도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무언가 잘못 되었구나', "주님, 제가 왜 사소한 반응에 이렇게 생각할까요?"기도했더니, "초중고 시절 겪었던, 잘못 형성된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안에 반응하는 것들이 있거나, 상대방의 어려운 마음이 드러날 뿐이구나!'를 알게 되었죠.

이후부터 "단순하게!"라는 삶의 태도로 상황을 대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시 44:21)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상대방이 내게 부정적 감정을 갖고 대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똑같은 상황이 와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온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께서, 고통을 돌보시며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저뿐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 단순하게 ' 받아들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 컬립



성서대학교회 담임

#### 오래된 약속

6 년 전 귀국하기 전 유럽선교회에서 강사로 섬긴 일이 있었습니다 . 그때 유럽을 친절히 소개해 주던 피렌체 한인교회 강광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 강 목사님은 피렌체 한인교회와 빼루치아한인 교회를 섬기는 분입니다 . 피렌체에서 몇 시간 떨어진 지역 한인들을 위해 두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 오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피렌체를 한 번 방문해 주길 요청하였고 저도 그러겠다고 약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귀국해 보니 생각보다 일이 많아 지키지 못했고 그러다가 코로나 까지 터져 더더욱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저는 목사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강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 , 현재 권사님과 집사님 한 가정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

마침 CBS 성서 학당이 5 월로 끝마치고 여유가 생겨 피렌체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6 월 16일 (금) 출국, 29일 (목) 귀국 예정입니다. 2 주간 피렌체와 로마교회를 여행하게 됩니다. 제가 없는 동안 강단은 협동 목사와 외부 강사 목사님이 섬겨주실 겁니다 . 그동안 집밥을 계속 드셨 다면 이제 강사 목사님을 통해 맛깔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젊어서 여행하면 늘 흥분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젠 시차가 부담스러운 나이를 맞게 돼 그리 흥 분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미국 사는 아들과 피렌체에서 만날까 하고 타진해보니 일정이 바빠 그것 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 저는 어디를 가면 여행보다 미술관 방문을 선호합니다 . 피렌체는 우피치 미 술관이 있는데 직접 보고 싶은 그림을 웹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 다녀오면 현재 학교 코코스지에 연재하는 「온유한 갤러리」 미술 이야기와 평생교육원이 가을에 부탁한 미술 강의가 더 풍성하고 생 생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이민교회 강단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보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한인교회는 미국이나 캐나다 교 회와 다르게 한인 숫자가 적고 교회도 생각보다 약합니다 . 이민자 자녀들은 현지화되고 그동안 교 회를 충실히 섬겨 온 1 세대는 은퇴하며 고령화를 맞고 있습니다 . 그렇게 연약한 교회를 말없이 섬 기고 계신 목회자들과 만나 교제하게 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 저희 부부가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게 △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민교회 교우들에게 주님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게 △ 피렌체 한인교회와 빼루치아교회 성도들과 강광선 목사님 부부를 위해 △ 시차 적응을 잘 이뤄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없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그리고 더 열심히 예배 자리를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7월

####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08



#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34호

## 호퍼의 푸른 저녁

에드워드 호퍼 (Edward Hopper 1882-1967)



푸른 저녁(Blue Night) 1914년

전시회에 가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 은 말은 글을 보지 말고 그림을 보라는 겁 니다 . 전시회 입구나 혹은 그림 옆에 해설 을 읽고 그림을 보는데 그림에 집중하길 바 랍니다. 꼭 읽고 싶다면 그림을 감상한 후 읽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쳐도 됩니다. 전 시회 다녀왔는데 그림은 안 떠오르고 해설 한 글만 생각나는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 다. 남의 글을 읽고 그림을 보면 상상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은 상상 력을 주고 그 상상력은 우리 마음속에 숨 어 있는 기억과 잊어버린 사건을 부활시키 는 힘이 있기에 그림 안에서 우리의 기억은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전시 순 서대로 따라가지 말고 중앙에 서서 전체를 한번 보고 마음 가는 그림부터 바라보는 겁

니다. 스스로에 왜 그림이 끌렸고 무슨 매력이 있었는지, 그림을 향해 왜 나를 불렀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림이 작은 소리로 대답을 해줄 겁니다.

현충일 날 ' 길 위에서 ' 를 주제로 에드 워드 호퍼 전시회가 열린 서울시립미술관 을 다녀왔습니다 . 사실은 미국에서 비슷 한 주제의 호퍼 전시회를 갔던 기억이 있어 그때와 지금 , 미국과 한국에서 호퍼 그림 을 비교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유화가 생각만큼 많지 않았으나 과거에 보지 못한 호퍼의 습작과 만나게 돼 행복했습니다 . 전시회를 나오며 마지막 남은 10 분을 보 낼 그림으로 ' 푸른 저녁 ' 을 선택했습니다 . 다시 만난 ' 푸른 저녁 ' 은 처음 볼 때 보다 더 정적이었습니다 . 뒤에 보이는 푸 른 바다며 하늘도 부는 바닷바람에 흔들렸 어야 했을 등불들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 공간조차 다 멈춰버린 듯 고요와 외로움이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피카소에게 푸른 색은 외로움과 절망의 상징. 호퍼의 푸른 색도 거기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리 에서 막 돌아와 그린 이 그림에서 제가 만 난 사람은 기둥 옆에 팔짱을 끼고 앉은 남 자입니다. 그림 한 가운데 흰옷을 입고 분 장을 한 피에로와 대조적으로 변두리에 앉 아 불 없는 담배를 물고 앉은 남자와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남자 사이 에 사적인 대화를 밝힐 의무는 없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이 카페를 나가면 어디로 갈 거 니 ?"라고…

#### 대학어린이집



▲ 경찰관과 함께 교통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들

#### 찾아오는 교통안전교육

대학어린이집에서는 지난 14 일 (수) 만 3~ 5 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실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방문한 덕분에 유아들은 교통안전교육에 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교육을 통해 유아들은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배우고, 차 주변에서 놀지 않기, 무단횡단 금지와 안전벨트 착용하기 등을 꼼꼼히 익혔다. 경찰관이 다양한 교육 도구와 재미있는 영상 자료를 상세히 설명하며 진행하는 방식이 어서 아이들의 집중도도 높았다.

나날이 늘어가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각심과 안전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한 교육이었다 . [은혜반 교사 노민지]

#### 월계종합사회복지관



▲ 개관 30 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내빈과 자원봉사자

#### 월계종합사회복지관 개관 30 주년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개관 30 주년을 맞아 14 일 한국성서대학교 와 형제기관이 함께한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와 함께 복지시설 종사자의 미 선비전 기반 조직운영과 전문적 사업 실천 사례 발표, 실천 경험사례 공유 등 이 현장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최미정, 임재택, 문유나 팀장이 서울시사회 복지사협회장 상을, 김선애 조리사, 윤종찬 팀장이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장의 근속공로 표창의 기쁨을 얻었다. 15 일에는 복지관 운영에 도움을 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운영위원 대상으로 감사를 드렸다. 오승록 노원구청 장의 축사와 30 년간 복지관 역사 공유 및 직원 공연까지 더해지며 축제가 마 무리되었다.

앞으로도 월계복지관은 전문적인 사회 복지 실천과 행복한 복지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 김선화 부장 ]

#### 꿈빛어린이집



▲ 어린이집 전면에서 열리고 있는 부모 참여수업

#### 부모 참여수업

꿈빛어린이집은 지난 6월 21, 22, 28일 사흘간 부모와 함께 하는 ' 부모참여수업'을 가졌다.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일과에 맞춰 생활을 경험하며 공감해보는 시간이다.

반별로 주제에 따라 다양한 영역 놀이가 진행되고 실외로 나가 자연 안에서 함께 뛰며 즐겼다. 자녀와 정해진 일과를 함께 보낸 부모들은 "친구들과함께하는 놀이를 지켜보는 게 좋았다", "가정에서 하기 어려운 놀이가 이어져 괜찮았고 평소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확인할 수 있어 즐거웠다"며참여 수업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영유아놀이에 대해 가정과 어린이집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자녀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돕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련반 정소윤 교사]



#### 선서대하고히



▲ 포천에서 모임을 가진 7 여전도회 회원<del>들</del>

#### 만남과 교제

성서대학교회는 코로나가 완화된 이후 성도들과 갖는 모임을 점차 회복시켜가고 있다. 6월 셋째 주 (18일)는 연령별로 구성된 전도회 모임, 넷째주 (25일)에는 총 32개로 구성된 여자 사랑방이 모여 만남과 교제를 이어갔다. 성도들은 맥체인 일정표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유하였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다한 기도로 공동체의 사랑을 세워주는 자리가 되었다.

특별히 7 여전도회는 모임에서 결정한 포천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오랜만에 야외 나들이를 통해 자연 안에서 함께 식사하며 신앙과 삶의 공통관심사를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성서대학교회는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견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김문응 목사]

#### 상계백병원어립이집



▲ 야외에서 열린 가족의 날 미니운동회 모습

#### 가족의 날 행사

지난 3 일 상계백병원 어린이집에서는 가족들이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자리를 가졌다. 주제는 '특별하고 소중한 하루선물 '로 정하고 온 가족이 즐기는 '가족의 날 (미니운동회)'를 진행하였다. 종목은 미션 릴레이 달리기, 색깔판 뒤집기, 보물찾기, 스파이 찾기, 줄다리기 등의 미니운동회가 펼쳐졌다. 각 종목이 진행될 때마다 가족이 협조와 사랑으로 목표를 향해 이끌며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미소를 짓게 하였다. 가족별로 도자기 그릇을 개성적으로 빚고 만들어 보며 흙놀이가 주는 기쁨을 즐겼다.

부모님과 아이들은 다양한 놀이 과정을 마음껏 즐기게 돼 너무 재미있었고 활짝 웃었다. "등의 소감으로 이번 행사에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 푸른반 교사 방수현 ]

##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 주민들이 나의 한때 사진찍기에 참여하고 있다.

#### 하계어울림센터 '옥상별빛축제'

지난 10 일 하계어울림센터에서 주민 간 세대를 초월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옥상별빛축제'를 진행하였다. 이번 축제는 노원구가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나는 한때' 그림책을 주제로 기획되었다.' 공동육아방이 하 계어울림센터에 입주한 기관으로서 축제에 동참했고 주민들에게 소중한 만 남의추억을 선사하였다.

센터에서도 ' 나의 한때 사진찍기 ' 코너를 마련하여 가족들이 함께 재미있는 소품으로 꾸며 주며 순간의 멋진 사진으로 남기고 액자로 꾸며 주는 활동을 진행해 주었다. 이번 행사가 각 세대간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면서 지금이나, 지금 이 순간에 맞는 행복한 감정을 느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 사업팀장 최은혜 ]

#### 상계 5 동어린이집



▲ 옥상에서 열린 <del>늘푸른</del>반 가<del>족음</del>악회

#### 늘 푸른 가족 음악회

지난 2 일 옥상 정원에서 가족을 주제로 만 4 세 늘푸른반 음악회가 진행되었다. 유아들이 만든 초대장을 만 0 세 ~ 만 5 세 유아에게 전달하며 기대 감을 높였고 주민센터의 그늘막 협조로 멋지고 시원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 유아가 '어린이집에 함께 생활하는 우리도 가족이네요 ?' 멘트로 음률놀이가 시작되었다. 무대 꾸미기, 의상 만들기, 역할 정하기 등 전 과정이 유아들과 의논을 거쳤고 교사와 유아들이 작사, 작곡한 노래라서 더 특별함을 안겼다.

마지막 노래까지 멋지게 마친 후 만 3 세 동생반에서 형님들을 위해 직접 만든 꽃을 선물로 전달, 감동을 안긴 음악회가 되었다. 그동안 코로나로 모일 기회가 없어 아쉬웠으나 이번 음악회가 서로 얼굴을 보고 웃으며 함께 즐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초록풀잎반 교사 강혜진]



#### <del>늘</del>사랑어린이집



▲ 카나페 요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영유아<del>들</del>

#### 카나페 요리 활동

지난 26 일 어린이집에서 샤인머스켓 치즈 카나페 요리 활동을 진행하였다. 영유아들이 요리에 대한 기대와 흥미를 갖도록 교사는 2 주 전부터 요리 순서도를 각 반에 제시하고 관련 이야기도 나누었다.

영유아들은 손을 씻고 교사의 도움으로 앞치마와 모자를 착용하고 제공된 카나페 재료를 오감을 통해 탐색했다. 익숙한 식재료라 거부감없이 맛을 보며 즐겼다. 이후 교사의 도움으로 도구를 사용해 샤인머스켓 치즈 카나페를 만들었다. 영유아들은 하나뿐인 나만의 카나페를 완성한 것에 기뻐하며 맛을 놓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샤인머스켓 외에 여린 잎과 새싹등 그린 푸드를 활용한 간식을 만들며 맛과 영양이 골고루 충족된 시간이 되었다. [즐거운반 교사 최수정]

# 「성서대학돕기운동」기부현황

- 기부기간 2023년 5월 21일부터 2023년 6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_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Wire Transfer: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384 048 3592 \_ Routing No,: 121 000 248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 접수처 /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강우정, 강진(총장)	1,189만원(운영)	반종원(이사장)	100만원(운영)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939만원(운영)	홍설자(이사)	100만원(운영)					
무 명	710만원(성서학발전,장학)	동서환경(주)(김태봉 대표)	100만원(건축)					
하이폭래종한거추사무소	300마웨(으여)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재학생 및 가족	3구좌 변송이	2구좌 김윤숙 최지연			
1구좌 곽미화 김은경 류요한 마효정	3.3구좌 이정원	20구좌 김신덕	단체 및 기관			
신경자 안현정 용이름 유소담	교직원 및 가족	성서선교회	4.1구좌 두암산업(주)			
이환기 장희남 조믿음 허영숙	5구좌 장정순	1구좌 윤무표	25구좌 하이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			
홍선호	10구좌 박태수	5구좌 동두천성서섬김교회				
2구좌 정복자 정옥순 최호정	58,3구좌 유정선	일 반				
3구좌 설보경	부설기관	1구좌 김기수 김미라 위샐러듀				
5구좌 김기숙	2구좌 홍옥주	이현수 최은실				

####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샛별							
1만원	강나경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솔 강옥경 강은해 강정민							
	강주옥 강춘자 고성호 고재민							
	곽미화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실 권순웅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희조 금동옥 금필규 김가영 김다솔 김다예 김도훈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엘 김민정 김믿음 김병렬 김선근 김선태 김세현 김수연 김수정 김순녀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요셉 김유미 김유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은 김정희 김지선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범수 남성휘 노한나 도 만 류요한 류한나 류희정 마효정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박경수 박경옥 박문홍 박수진 박수현 박순임 박아론 박윤복 박재숙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변지윤 서성식

서유미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소명배 소영화 소유숙 소주현 손진규 송바울 송성은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연정 신은혜 신종수 신지은 신혜영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양혜영 엄미자 엄보영 여지은 연현숙 오채엽 용이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수정 유영진 유주연 유주홍 윤정숙 윤지준 유현중 유혜자 이광석 이권호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주희 이진경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해렬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진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장희남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금숙 정다연 정다운 정선도 정소윤 정영교 정윤미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희영 조믿음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윤석 최종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숙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황승호 강해든이 설에스더 신에스더 열매맺는교회 황보혜영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강재현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동원 김미나 김미향 김민지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연주 김영래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류충열 박상수 박재송 박주영 박혜숙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나은 송만호

> 왕용분 유의숙 윤광길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이영림 이영애 이유미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이종인 이츳희 이현우 인수경 임수정 임은희 임주영 장은경 장재경 장재원 전수경 전영희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은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한민수 허춘선 홍진옥 홍혜주 황인숙 등대교회

송인성 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3만원 고은영 공복순 공지은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윤정 김재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반세호 배예진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양연선 우종엽 유이랑 윤문순 이길순 이남희 이다윤 이안나 이윤성 이주연 이현지 임연식 장영훈 전지혜 정슬기 최선경 최양서 최은희 탁현정 태지선 황영숙 좋은교회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5만원 김동완 김준오 김 진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박인순 서명주 송복순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광삼 이기훈 이병철 이부호 이지은 천유림 최경환 최송희 벧엘성서동우회

6만원 김지애 정동주 최소린 10만원 강경옥 김동관 김선옥 김장교 김종숙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함평대동교회 11만원 신영옥 유선미 12만원 성낙표

15만원 박빛나 100만원 이례장한

####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권명희 기병문 김민서 김선경 김양순 김은주 김혜미 선동하 선유정 심희정 안양희 양은성 양주향 이광승 이동기 이은수 이혜정 임동화 장연정 전계화 지줒배 2만원 김선옥 김애선 김창환 김형태 박명규 송동식 송세희 신한우

연성희 이마리 이미영 이은영

기부자 명단							
	이진아 장영순 전옥순 조복임		위소진 유정현 장나혜 장윤정	15마워	최강희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조율이 천광호 함은애	/마위	박미선		권태완 최대만		박해숙 서민석 송수용 안애숙
2마워	배정숙 송의택 안태유		김선화 박연희 신영자 이인경		허에스더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김명자 김선주 김성안 안종헌	30.6	이지연		어에 <u></u> 의 성서대학교회		유해연 유화실 이관헌 이민우
366	이재현 이지영 정미영	10마위	권정아 장수진 조지선	성서선교회	O시레크 <del>파크</del>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20마위	박지홍		김화영 지주나		금촌성서교회		이항의 이수균 이전구 이유진
	이정원	20만원			마는 6시교회 태광성서교회/푸른동산교회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400.0	ਪਰਸ਼		오동준		대용경시 <u>파외/구근용</u> 전파회 다빛교회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교직원 및 기	ᅜ	30만편	<u> </u>	10건권	다ऱ <sup>ळ</sup> 의 /동두천성서섬김교회		최서영 최은실 한춘경 황영수
	등 강신애 곽한나 권관희 김미영	권선제일교호	I		/삼일성서교회		위샐러듀
100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I 이상규	വേല	/검찰경시파회 중앙성서교회회	വല	기골디ㅠ 강명옥 길옥석 김동석 김동우
	김애란 김유진 김은실 김종현		권선제일교회	수원교회	오오오시파치치	20.0	김성래 김윤숙 서병준 서성원
	김지성 김지환 김지효 김춘하	5년년 동광교회	년인제글파외		강동형 김일섭 정유광 홍성호		이일신 정주아 정형채 조혜령
	김형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김복례 한미희 배 윤,김현진		반요셉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박묘서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밀알교회	a국에 한마의 에 프.a한단	어린양교회	CTG		/행복한교회
	심평강 양승원 윤명섭 이문자		서효정		김 웅 한지화	2마위	기종학원교회 기종환 손승현 장문석
	이은영 임수아 장경순 장원경	삼일성서교호	· -		임윤창 어린양교회	3만5천원	
	전광선 전귀선 정현아 지수빈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한금순		이정선		ㅋㄷㅎ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진달래 하희수 허윤민	서문교회	무표의 구이도 어제된 단티로	이레교회	VIOL		서미혜 정동환/평화의교회
	요시다고조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손미희 이채은		류동원 박경혜
2마위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구자람	1만5천원		장자교회			뉴증전 작성에 박순정
200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봉재		서문교회		권정숙	30LE	760
	김세원 김장호 문지예 민경은	성서대학교호			장자교회	단체 및 기관	k
	박은주 배민정 안 호 유성현		박용숙	주향교회	OVITE		: 김포예수사랑교회
	장길정 장지순 전영호 정순애		무 명		유병우	100	/늘푸른교회
	정은상 조철남 최난영 한상만		과규상 김영숙 김혜진 이 천		정우진		/달푸근교되 /맘키즈푸드/목양교회
	한정숙	022	임성일 정갑순 황성모		주향교회		/무진인터내셔날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박성범 박인혁	1마워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중앙성서교회			/주님손교회/행복한교회
922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여진희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 곽 해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유수연 윤혜진 정지용 추연진	1만8처워	고경숙 고미숙 김덕현 김동석		이태학 최영란		/도새기짱/바르고복된교회
5만원	구광면 김미숙 김병수 김성호	12022	김문정 김사천 김상은 김성은	2만원	신영옥 강영애 신한성		/열방교회
022	김원빈 김현동 신지수 양단아		김성진 김성철 김애숙 김유미		이준구.안춘자	3만원	거든(3교교) 꿈꾸는교회/우리교회
	유미나 이상일 이은광 장정순		김은미 김지윤 김진철 김향순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022	/의정부좋은나무교회
6만원	권순범		김현미 김희현 박상희 박영숙		김옥자 김종구 이경식 한금례		/주식회사 이수전기
	강정원 고미숙 곽규상 김덕현		박영신 박은선 박이숙 박인숙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		/한길교회(김오권)
	김도경 김성경 김소희 김승호		박태수 방미경 서영우 서윤희		로회	4만원	플랜팅시즈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서 훈 석경순 손원자 안영숙	10만원	김용철 송인숙 현희철		가학교회/다드림교회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오경모 오종철 윤재필 이봉호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대광교회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오은주		이소정 이영진 이영희 이정숙	12만원	황인돈.김순자		/본도시락 중계점
	원영희 이민규 이성아 이소정		이정자 이종옥 이주현 장근문		오근수		/사랑샘교회
	이슬기 장성희 장인순 조현진		장진희 장혜린 장홍림 정선희	15만원	이혜선		/상일교회/예일에드컬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열		정예진 조영희 조정선 조현진	22만원	이수병		/천성교회/행전교회
	최은희 현우석 홍소윤		최영태 최용석 최인숙 하은희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10만원	(주)바다나라
	김정원(신) 김정원(영)		한성실 한충헌	퇴계원제일교			/(주)이레E&C이레디자인
11만원	최지은	2만7천원	유상호 이상록 정희선		유재란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김중완 한진호	3만6천원	강규성 권정화 김민자 김배열		퇴계원제일교회		/구리중앙교회/도봉성산교회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김성진 김인영 김인자 김춘환	평원교회			/상록교회/서부중앙교회
	안정선 이한영		김희자 박 선 박은유양태환	1만원	성경아		/성복중앙교회/소망교회
20만원	김승옥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용정자 유정선 이경신 이관영	평화교회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이길우 이승림 정나영 조병하	1만원	안종민 안지선		/평안교회(송파)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허진순 황시온	풍암교회		112,500원	우리회
35만원	최선희	4만5천원	김동선 유형창	1만원	유금례 <del>윤은</del> 정	20만원	(주)소원기건
100만원	반종원 홍설자	5만6천원	김 <del>문응</del> 김일선 민 <del>윤옥</del> 송재철	함평대동교회		30만원	한민제일교회
710만원	무 명		최선희	1만원	김희경	60만원	두암산업(주)
1,190만원	강우정.강 진	7만2천원	박선하 박성환 황서린	효성교회		100만원	동서환경(주)
		9만원	강성훈 길용희 김원태 박세건	1만원	진경숙 진효숙	300만원	하이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
부설기관			이은실 이정임 최순남 최정권	일 반			
1만원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임재택		최지웅 한진호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소계(20230	521~20230620)
	호한나	11만원			김대석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65,494,350
2만원	진양희 홍옥주	13만원	유중엽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누계(20220	301~20230520)
3만원	권효진 문유나 변송이 안미희	14만원	박온오		김천수 김희권 노은경 문해영		228,785,529
한국성	서대학교 6월 『 <b>발전후원</b>	금,					

```
한국성서대학교 6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함계 20,310,000원)
한국성서선교회 (이사장 현희철) 10,000,000원 / 무명 7,000,000 / 김승옥(교직원) 1,700,000
현희철(동문) 1,000,000 / 반종원(동문) 600,000
약정 후원자 (합계 37구좌 연간 납입예정액 4,440,000원)
15구좌 대광교회 (동문) / 10구좌 홍소윤(교직원) / 5구좌 화도드림교회(동문)
2구좌 김웅(일반), 에이스외식산업(일반), 조은별 (동문) / 1구좌 김정희(일반)
```